

#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I)<sup>1)</sup>

김중배 (토지박물관)

## 1. 머리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新石器時代의 研究는 土器를 대상으로 한 分類와 編年이라는 기본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시기에 따른 變化 형태를 추적하고 地域的인 상관관계를 推論할 수 있는 共通分母로서 토기가 주요한 관찰 속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석기시대의 문화 그리고 文化 變動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서 土器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에서 파생된 많은 樣相중 토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방법으로 식량을 獲得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動因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요소가 발생하거나 유입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일차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실은 토기 외에 보다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食糧資源은 무엇이었는지는 炭化된 植物遺體의 同定, 調理와 관련된 유물에 남겨진 脂肪酸의 분석, 또 패총에서 발견되는 각종 動物 遺體의 分析 등 自然科學的인 분석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먹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남겨진 도구 즉, 유물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선사시대 유물의 대부분은 이러한 食糧資源 獲得과 加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이 주로 강가와 바닷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水邊 유적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물은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고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식량자원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분야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극히 미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의 주변지역과의 문화적 연관성을 추적하고 문화적인 相似性과 相異性을 밝히는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밝히는 작업도 진행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별 유물의 기능과 특성에

1)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를 부분 수정하고 체제를 바꾸어 두편으로 나누어 신게 된 것이다. 졸문을 학회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신석기연구회 회원 제위와 안승모 회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낚시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낚시도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낚시바늘의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낚시가 新石器時代 資源 獲得 방법에 있어서 갖고 있는 生計經濟的 의미를 推論하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낚시바늘을 型式分類하고자 하였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줄과 바늘을 根幹으로하는 漁撈法이다. 다시 말하면 낚싯줄과 바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捕獲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의 공동작업이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매우 간단한 어로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대상 어종의 차이에 따라 바늘의 구형태·크기·재질 등의 변화를 보이게 되고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錘를 사용하는 등 부가적 도구들이 사용된다.

신석기시대 낚싯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출토된 바 없지만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토기편 중 그물 모양이 찍힌 것이 있어 어망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어망의 제조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면 식물성 섬유를 꼬아 만들거나 동물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질긴 줄을 만들어 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낚시추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판암제 석추들이 노래섬 등지에서 보여지며 동삼동과 연대도, 상노대도 등지에서는 대형 어류의 脊椎를 이용한 찌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줄과 추·찌 등의 보조도구 보다도 낚시의 기능과 사용상의 문제는 결국 바늘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낚시바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나타나며 지금 사용하는 낚시바늘과 비교하였을 때 육지도 패총에서 출토되는 곧은낚시를 제외하면 갈고리 형태라는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대의 낚시바늘을 살펴보면 대상어종에 따라 허리의 길이라든지 바늘의 뒤틀림·폭의 넓이·구부러진 각도 등 세밀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보이며 동일 어종에 대한 바늘이라도 개체의 크기에 따라 바늘 자체의 크기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낚시바늘의 세밀한 형태와 크기 차이는 신석기시대 낚시바늘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러한 신석기시대 낚시바늘의 형태와 크기의 변화가 과연 현대의 낚시바늘에서처럼 대상어종의 차이와 개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출토된 낚시바늘과 낚시바늘이 출토된 유적의 환경 분석을 통한 대상 어종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낚시바늘의 형태 차이가 대상 어종과 개체 크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형태나 크기가 어떠한 어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낚시바늘 형태의 분포상을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낚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와 그 변화 양상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의 낚시바늘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이음낚시와 홑굽은낚시, 곧은낚시 등이 있다. 이러한 낚시바늘이 출토된 유적은 서포항유적<sup>2)</sup>·송평동유적<sup>3)</sup> 등의 동북해안지역,

2)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4輯, 사회과학출판사  
 서국태, 1986, 「서포항유적 신석기시대사람들의 물고기잡이」, 『조선고고연구』1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3) 藤田亮策, 1930, 「雄基松坪洞石器時代遺蹟の發掘」, 『靑丘學叢』2

고성 문암리유적<sup>4)</sup> · 양양 오산리유적<sup>5)</sup> · 동해 망상동 노봉유적<sup>6)</sup> 등 동해중부해안지역, 울산 세죽리유적<sup>7)</sup> · 울산 우봉리유적<sup>8)</sup> · 울산 신암리3지구<sup>9)</sup> 등 동남해안지역, 부산 동삼동패총<sup>10)</sup> · 사천 구평리패총<sup>11)</sup> · 통영 연대도 연곡리패총<sup>12)</sup> · 상노대도 상리패총<sup>13)</sup> · 옥지도패총<sup>14)</sup> · 범방패총<sup>15)</sup> · 범방유적<sup>16)</sup> · 여수송도패총<sup>17)</sup> · 농소리패총<sup>18)</sup> · 대경도패총<sup>19)</sup> · 안도패총<sup>20)</sup> 등 남해안지역, 노래섬패총<sup>21)</sup> · 가도패총<sup>22)</sup> 등 서해안지역 등지의 해안유적과 유일한 내륙지역 유적으로 춘천 교동유적<sup>23)</sup> 등을 포함하여 22개소이며 여기서 출토된 낚시바늘은 미완성품과 파손품을 포함하면 212점<sup>24)</sup>에 이른다. 본 논문은 이 212점의 신석기시대 낚

- 4) 윤근일, 1999, 「고성 문암리 신석기유적 발굴조사 개요(’98-’99年度)」, 『文化史學』11·12·13號, 韓國文化史學會 申熙權, 2002, 「’98-’99 高城 文岩里 新石器遺蹟 發掘調査」,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5) 任孝宰 · 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서울대학교박물관  
金元龍 · 任孝宰 · 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Ⅱ, 서울대학교박물관  
任孝宰 · 李俊貞, 1988, 『鰲山里遺蹟』Ⅲ, 서울대학교박물관
- 6) 關東大學校博物館, 1996, 『東海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 7) 黃昌漢, 2002, 「蔚山 黃城洞 細竹遺蹟」,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博物館, 2002, 「蔚山 細竹 遺蹟 試掘」, 『慶州地域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 8) 沈奉謹 · 李東注, 1997, 「蔚山牛峰里遺蹟」, 東亞大學校 博物館
- 9) 申鍾煥, 1989, 「蔚州 新岩里 遺蹟」, 『嶺南考古學報』6, 嶺南考古學會
- 10) L.L.Sample, 1974, 「Tongsamdong :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tic Anthropology』11-2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9, 『동삼동패총』유적발굴조사 설명회 자료집
- 1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3, 「사천 구평리 유적」
- 12) 韓永熙 · 任鶴鐘, 1993, 『煙臺島』Ⅰ, 國立晉州博物館 · 統營郡  
임학중, 1991,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Ⅱ」, 『韓國考古學報』26輯, 韓國考古學會  
임학중, 1992, 「통영 연대도 조개더미 발굴조사(4차)」, 『韓國의 貝塚文化』, 第16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文
- 13) 손보기, 1982, 「상노대도의 선사시대 살림」, 연세대학교박물관 선사연구실
- 14) 國立晉州博物館, 1989, 『欲知島』
- 15) 河仁秀 · 李海蓮 · 李賢珠, 1993, 『凡方貝塚』Ⅰ, 釜山直轄市立博物館  
河仁秀, 1996, 『凡方貝塚』Ⅱ, 釜山直轄市立博物館
- 16) 河仁秀, 2002, 「凡方遺蹟 發掘概要」, 『韓國新石器研究』第3號, 韓國新石器研究會
- 17) 國立光州博物館, 1989, 『突山松島Ⅰ』  
國立光州博物館, 1989, 『突山松島Ⅱ』
- 18) 金龍基, 1965, 「農所里貝塚의 發掘調査概報」, 『古文化』4
- 19) 趙現鐘 · 申相孝 · 殷和秀, 1994, 「麗川郡島嶼 地表調査 報告」, 『突山 世救地 遺蹟』, 國立光州博物館
- 20) 趙現鐘 · 申相孝 · 殷和秀, 1994, 「麗川郡島嶼 地表調査 報告」, 『突山 世救地 遺蹟』, 國立光州博物館
- 21) 李永德, 2001, 「群山 노래섬 遺蹟의 新石器時代 土器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22) 朴淳發 · 林尚澤 · 李俊貞 · 金壯錫, 2001, 『駕島貝塚』, 忠南大學校博物館
- 23) 金원룡, 1963, 「春川校洞 穴居遺蹟과 遺物」, 『歷史學報』20, 역사학회
- 24) 이음낙시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된 것들 중에 도면과 사진 자료가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 학자마다 개체의 셈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또한 보고서 미간의 경우 현장설명회 자료와 도록 등에 제시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시바늘을 研究對象으로 하였다.

研究對象인 낚시바늘의 총 양은 212점으로 다른 漁撈具에 비해 단일 遺物로서는 적지 않은 양이지만 주로 출토되는 이음낚시의 경우 바늘과 허리가 분리되어 출토된다는 점과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전체 낚시바늘에서 많지 않다는 자료의 한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패총 유적의 경우에는 허리와 바늘이 모두 출토되지만 양양 오산리나 고성 문암리와 같은 유적의 경우에는 주로 골각제인 바늘부분이 남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과 설사 패총유적이라 하더라도 잔존하기 힘든 다른 재질의 낚시바늘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자료 보존상의 문제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분포상의 의미를 파악할 때 자칫 잔존하지 않는 유물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비중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낚시바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음낚시가 가지고 있는 재료적, 구조적 특성을 생각하면 석제 혹은 골각제 이음낚시를 제외한 다른 재질의 낚시바늘의 존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석제와 골각제를 제외한 다른 재질의 낚시바늘의 존재는 배제하였다.

型式分類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 설정이 가능하겠으나 機能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체적인 형태·크기·재질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기능을 추론함에 있어 선정된 분류 기준들은 현대 낚시바늘에서 보여지는 대상 어종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기준 설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낚시바늘을 살펴보면 목의 길이·몸의 넓이·세워 보았을 때 바늘의 뒤틀림 등 대상 어종에 따라서 형태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어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대상 어류의 크기에 따라서 바늘의 크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材質은 낚시바늘을 사용하는 방법상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石製와 骨角製로 나뉜다. 石製 낚시바늘은 무게와 관계없이 가라앉는 재질이며 骨角製는 대체로 重性 浮力을 띤 것으로 나무처럼 크지는 않지만 석제보다는 부력이 있는 재질이다.

낚시바늘의 크기는 전체의 길이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출토되는 이음낚시는 바늘과 허리가 따로 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적 형성 조건에 따라서는 유기물로 만들어진 바늘부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음낚시의 허리와 바늘이 연결된 상태에서 길이는 전적으로 허리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길이를 측정하면 이음낚시의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이음낚시 전체 길이의 分布圖를 작성하여 밀집 상황을 따라 大·中·小로 분류하였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어로문화에 대한 연구는 신석기문화 연구 전반이 그러하듯 1970년에 들어서야 체계적인 유적 조사와 유물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연구들은 출